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5~11/1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백일 동안 백가지 이야기	이현수	담앤북스
2	대념처경	정관	조계종출판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4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5	참선수행지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 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6	법화경(경전조사어록5)	우학	좋은인연
7	대혜서장	김태완	침묵의향기
8	천지팔양신주경	김현준	효림
9	할(임제선사어록)	임제/고광 역주	사리각
10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멸(2)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법구경	식카와띠 위뿔라냐니	담마디빠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마음닦는 법	김재웅 지음	용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6	철학자와 함께읽는 동화	이일야	담앤북스
7	불교개론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8	절집길라잡이	김영숙 지음	운주사
9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10	상윳따니까야(1)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깨달음의 노래, 생활의 지혜로 풀다



증도가 강설
진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7000원

영가 현각 스님의 선수행 요체
선적 상징·비유를 일상 언어로
삶의 구체적 장면 비유해 설명
고락·시비 넘어 마음 비추는 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다만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 말지니(但得本莫愁末)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머금음과 같구나(如淨瑠璃含寶月)."

〈증도가(證道歌)〉는 중국 당나라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 스님이 선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을 집약해 남긴 선시(禪詩)다. 글자 그대로 스님이 직접 깨친[證道] 경지를 게송으로 노래[歌]했기에, 참선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의 교과서'로 여겨진다. 그러나 짧고 압축된 게송은 선(禪)적 상징과 비유로 가득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은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행을 통해 마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해도 체득하기까지는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스님이 〈증도가〉 강설에 나선 이유다.

그간 〈신심명〉과 〈금강경〉 등 불교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온 진우 스님은 〈증도가〉 강설 역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님은 "깨달음은 특별한 곳이 아닌 지금 이 자리, 현재의 마음을 여여히 바라보는 데 있다"며 〈증도가〉에 담긴 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 대입해 설명한다.

'궁색한 불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음이라(窮釋子口稱貧 實是身貧道不貧)'는 게송을 풀이한 구절이 대표적이다. 진우 스님은 선물 받은 안경을 택시에 두고 내린 일화를 예로 들며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순간 아깝기도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으나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물건을 가지면 이내 집착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 가지거나 갖지 않는 두 가지 분별의 마음마저 사라져야 진정한 무소유요 가난하지 않음"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또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사업이 잘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을 때 등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의 파도를 〈증도가〉의 지혜와 연결해 생각하게 한다.

핵심은 '좋다 싫다' 하는 고락(苦樂)과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是非) 분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며 고락의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와 괴로움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화를 낸다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다만 지혜가 부족하고 업(業)과 습(習)이 두터워 이를 조절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마음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좋고 싫다는 분별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일은 인과(因果)와 연기(緣起)에 따라 한 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전 해설자가 아니라 독자와 함께 걷는 '길동무'를 자처하는 스님의 글은 무겁지 않다. 깨달음의 노래를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 생활의 현장으로 가져온 〈증도가 강설〉은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찾아서 지금 당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려 준다.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선명상'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 〈두려워하지 않는 힘〉, 〈제발, 걱정하지 마라〉, 〈만선동귀집 총송〉, 〈신심명 강설〉, 〈개미의 발소리〉, 〈진우 스님의 금강경 강설〉 등이 있다.

순간이 모여 삶은 따뜻해진다



순간들
주석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7800원

두 산문집서 엄선한 특별판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삶을 살아 내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순간들이 우주를 이룹니다."

주석 스님이 그간 펴낸 두 권의 산문집에서 엄선한 글로 엮은 특별판이다.

1장에는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에서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일상의 단상과 삶의 중심을 지켜 내는 지혜를 전하는 산문을 골라 담았다. 2장은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에 실렸던 자작시로, 군더더기 없는 언어로 응축된 울림을 전한다. 3장 '에피소드: 나를 가만히 다독거립니다'에는 순간순간을 붙잡아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법을 알려 주는 짧은 산문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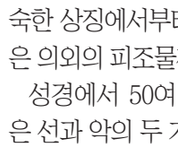
주석 스님의 글이 품은 따뜻한 온기는 우리에게 다정한 위로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힘을 준다.

주석 스님은 현재 부산 대운사 주지와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이웃 종교 책 읽기

자연이 전하는 무정설법



성경 속 동물과 식물
허영엽 지음
가톨릭출판사
2만2000원

동식물 78종에 담긴 '신의 섭리'
자연에 대한 같고도 다른 시선

연꽃, 코끼리, 사자. 자연스레 '불교'가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포도나 가시나무, 뱀 등이 아닐지.

〈성경 속 동물과 식물〉은 서울대 교구 허영엽 신부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16년 만에 개정판으로 단장한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78종의 동식물을 통해 각 존재가 지닌 상징과 의미를 세심하게 풀어낸다. 눈앞의 꽃 한 송이, 길가의 새 한 마리에도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 속 살아 숨 쉬는 동물 이야기'에서는 뱀과 비둘기, 낙타처럼 익숙한 상징에서부터 용, 모기, 벼룩 같은 의외의 피조물까지를 다룬다.

성경에서 50여 차례 언급되는 뱀은 선과 악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간교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비잔틴 교회나 콥트 교회 주교들의 지팡이에 새겨진 뱀 형상은 지혜를 상징한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건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온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롯됐음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리는 거짓 예언자를, 개구리는 하느님의 재앙을, 메뚜기 떼는 심판의 도구를, 독수리는 해방과 강인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과 그 시대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같은 동물을 바라보는 각 종교의 다른 시선을 짚어낸 점도 흥미롭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불교에서는 중생을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동물로 여겨지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서양 문화 전반이 그렇듯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여긴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적대 세력으로 자주 등장하기에, 용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는 기독교 미술에서 애용되는 주제였다.

'하느님의 정원 가득 채운 식물 이야기'에서는 평화와 축복의 상징 포도와 축복의 근원이 되는 밀, 부활을 상징하는 편도나무, 승리와 평화를 나타내는 올리브나무 등을 소개한다. 특히 아주 작은 사물에 비유되는 겨자씨는 불교에서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는 비유로 실상의 깨달음을 끌어내고, 성경에서는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말로 작은 믿음에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해와 달, 동물과 식물 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만드신 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노래를 들을 수 있기에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도 우리는 큰 은총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염수정 추기경은 추천의 글에서 "성경에 나오는 문화, 역사 등 특별한 환경을 알면 훨씬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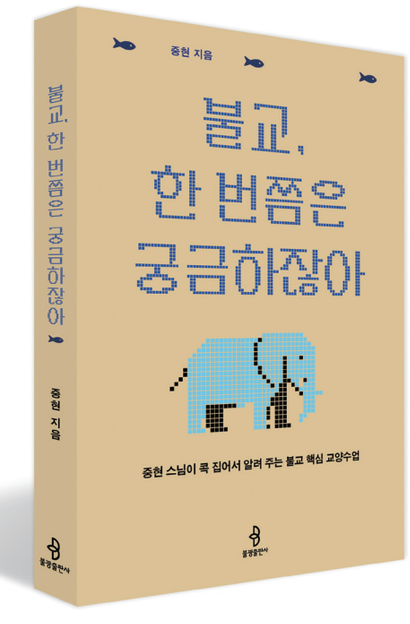
이 책을 읽고 나면 '들판의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는 성경 구절에 불교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을 겹쳐 보게 된다. 언어를 넘어선 가르침이 자연 속에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교가 한 번쯤 궁금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이다!

정답 없는 세상, 불교가 던지는 유쾌한 사유의 힌트
드디어 시작하는 내 생애 첫 불교 수업!



중현 지음 | 304쪽 | 22,000원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중현 스님이 콕 집어서 알려 주는
불교 핵심 교양수업

윤리와 가치가 힘을 잃은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선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간다.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는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말해 준다. 일상 속에서 불교의 지혜가 스미는 순간을 포착하며 우리 내면에 있는 사유의 힘을 깨우고, 마음의 기준을 세워 주는 든든한 지침을 만나 보자.



중현 스님 1998년 송광사에서 출가해 봉암사, 송광사, 화엄사, 석종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였다. 현재는 무등산 증심사 주지로서 삶의 자리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과 사람 사는 세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